



## ‘시즌2’ 맞은 ‘공정보도 텐트’, 그 첫날 풍경



연합뉴스 노조가 본사 앞 한빛공원에 ‘공정보도 텐트’를 설치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다 돼간다. 지난달 10일 설치된 공정보도 텐트는 그간 시민들에게 연합뉴스노조가 왜 파업을 하는지 알리는 창구 역할을 한 동시에, 선·후배 조합원들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랑방 역할도 했다.

노보팀은 공정보도 텐트의 시즌2가 시작된 지난 7일 하루 동안 텐트를 지키고 있던 조합원들을 만나 두 번째로 텐트 당변을 하게 된 소감 등을 들어봤다. 조합원들은 “텐트 당변을 두 번이나 하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힘을 내 파업을 승리로 이끌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 ◇ “텐트를 두 번이나 지키게 될 줄은 몰랐어요”

“벌써 두 번째라니 믿어지지 않아요.”

시즌2의 첫날을 장식한 조합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벌써 두 번째라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전 당변이었던 문화부 고현실 조합원은 “처음 텐트 당변표가 나왔을 때만 해도 ‘설마 이걸 다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두 번이나 하게 될 줄은 몰랐

다”고 말했다.

오후에 텐트를 지킨 정치부 현해란 조합원 역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낼 때는 잘 몰랐는데 텐트 당변을 다시 하게 되니 새삼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투쟁을 하고 있는지 실감이 났다”고 소감을 밝혔다.

### ◇ “한달된 텐트...이렇게 깨끗할 줄이야”

한달 만에 다시 찾은 텐트의 ‘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

오전 당변이었던 정치부 장하나 조합원은 “처음 텐트 당변을 할 때는 갈수록 지저분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막상 와보니 무척 깨끗하다”면서 “조합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내 집처럼 관리해서 그런 것 같다”며 감탄했다.

고현실 조합원도 “텐트에서 사람냄새가 난다고 해야 할까... 뭔가 자리가 잡힌 것 같은 분위기다”라고 보냈다.

오후 당변이었던 정치부 정아란 조합원 역시 “텐트 안도 깨끗하고, 텐트 밖에는 연합뉴스 파업을 소개하는 국문·영문 안내판과 파업 특보도 비치돼 전반적

으로 잘 정리된 느낌을 준다”면서 만족감을 표했다.

### ◇ 더위와의 전쟁

텐트를 지키는 조합원들의 가장 큰 적은 역시 더위다.

고현실 조합원은 “아침에는 약간 쌀쌀하다 싶었는데 오후가 되니 기온이 올라가 무척 덥다. 확실히 한 달 전보다 더 더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아란 조합원도 “텐트 안이 너무 더워 한동안 밖에 앉아 있었다”면서 텐트안의 열기(?)를 전했다.

점심 부회를 마치고 텐트에 들른 문화부 고미혜 조합원은 “한 달 전 텐트 당변을 할 때만 해도 어떤 시민이 핫팩을 주고 갈 만큼 밤이 되면 쌀쌀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나 싶다”면서 “곧 장마가 시작된다는데 그전에 협상이 잘 돼 조합원들의 고생을 덜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 ◇ 토론부터 수다까지... ‘소통의 장’이 된 텐트

한여름 한낮 더위를 견디거나 잠을 안 자고 밤새

2면에 계속

## “박 사장 협상태도 따라 대응 달리할 것”

공병설 노조 위원장은 8일 오전 사장실 앞 집회에서 “사측의 협상 태도를 지켜보면서 다양한 대응책을 어떻게 구사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박정찬 사장이 협상에 책임감 있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사태해결을 위해 우리가 가진 무기를 최대한 쓰지 않았지만, 최근 박 사장 쪽이 멋대로 사규 등 서류를 고친 일은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도 가능한 사안인 것으로 법률 검토 결과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 위원장은 전날 법원이 MBC 노조 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보고 이번 싸움의 정당성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연합뉴스 사태가 86일째 해결되지 않는 게 누구의 책임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황이 자신하게 유리하면 노조를 강하게 압박하고, 불리하면 아예 협상에 응하지

않는 등 그간 박 사장이 보인 무책임한 협상 태도가 파업 장기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사측이 협상에 성의 있게 나서면 노조도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공위원장은 밝혔다.

공 위원장은 최근 사측이 협상을 위해 양정우 멕시코시티 특파원에 대한 조기소환 인사를 유예한 점을 감안, 파업 중인 양 특파원이 페루 한인 실종사건을 취재하도록 결정한 것은 “막무가내식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 사안을 양 특파원과 상의하면서 남미에 한국 특파원이 거의 없다는 점,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의 안위와 관련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합원들은 박 사장의 출근 시간에

맞춰 센터원 1층 후문과 2층 로비, 7층 사장실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오전 9시15분께 도착한 박 사장은 차에서 내릴 때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장실에 들어갈 때까지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시위에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 <어느 파업 노동자의 일기> 네트워크사업부 고동선 조합원



※ 파업이 80일이 넘어가면서 조합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파업을 결의했을 때 문제의식은 그대로이

지만 파업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심적 압박감으로 '초심'이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노보팀은 현재 조합원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기'란 형태로 조합원들의 내밀한 이야기를 경청하는 난을 만들었습니다.

원고를 청탁받은 조합원들께서는 편하게 전날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2012년 6월5일(화) 날씨 = 변덕쟁이야~~

오늘도 새벽에 눈을 뜨고 잠시 고민했다. 오전 8시50분 집회 참석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며 이대로 침대에 누워 있을 '합리적인' 이유를 찾았다.

그 와중에 그만 어제 본 위원장의 하얗게 센 귀밑머리가 떠올랐다. 나의 부재가 그의 흰 머리칼락 하나를 늘리지는 않겠지만, 나의 참여가 없는 털 하나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다소 비과학적인 판단에 침대를 내려왔다. 어제같은 오늘로 시작하지만 다른 내일을 만드는 오늘을 기대하며.

집을 나섰다. 며칠 소슬한 바람에 티셔츠 밑 팔뚝에 소름이 돋더니 오늘은 아침부터 더위를 느꼈다. '뜨겁게 투쟁하자'는 구호는 분명히 겨울에 만들어

졌을 거다. 여름에 하는 투쟁에 뜨거운 형용사는 불필요할 테니. 잡생각에 담배 무는 타이밍을 놓쳤다.

만원 지하철을 타고 가는 중간에 자리에 앉았다. 오늘은 재수가 좋으려나, 좋은 소식이 들리려나 했더니 한 정거장도 못 가 새파랗게 젊은 놈이 얼굴을 들이댄다.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죄송한데 자리에 좀 앉게 해주세요." 살면서 이런 상황을 몇 번이나 겪게 될까마는 그중에 한 번이 하필 지금이라니. 이 자식 밤새 술 처먹고 지금 집에 가는지 얼굴에 식은땀이 범벅인 채 거절하면 내 머리에 토라도 할 기세다. '까칠함'은 내 삶의 방식이 아니다. 양보했다.

종각역에서 빠져나와 일부러 청계천변으로 길을 잡았다. 밤새 비가 왔던가. 오늘따라 물소리가 높다. 다리 난간에 기대 아득한 시선으로 이 물의 시작과 끝을 가늠해본다. 물줄기 중간을 가로지른 징검다리 주위로 하얀 물보라가 튀고 소용돌이가 일었다. 도도한 물의 흐름을 거역하지 못하는 현상이 역사의 순리로 비약한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이해되는 요즘이다.

사장님을 태우려고 로비에 미리 잡혀있는 엘리베이터 위 알파벳을 보며 오늘 7층 출근 저지 대열의 모습을 미리 머릿속에 그려본다. 동굴 입구처럼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불 꺼진 엘리베이터 속은 캄캄하다. 회사 건물로 들어온 지 잠깐인데 벌써 가슴이 답답해진다.

7층에 내려 물병 하나를 집어 들고 궁둥이 붙일 자리를 찾는다. 이름은 모르지만 낮은 얼굴들과 일일이 눈인사를 한다. 예상했던 자리에 예상했던

사람이 앉아 있는 걸 보면 인간은 시공간에 익숙해지는 대로 제자리를 찾나보다.

며칠 뜨개질을 하던 그녀가 보이질 않는다. 화백님은 요즘 그림 대신 아이 옷을 뜨고 있다. 저마다 타고난 소질을 이제야 발견해 계발하는 모습. 국민교 육헌장을 만드신 분이 이 광경을 보면 얼마나 뿌듯해할까.

사장이 올라오시려나 보다. 촘촘히 열을 맞춰 C 엘리베이터 문 앞에 선다. 냉방이 되지 않는 공간은 금세 긴장으로 채워지고 달아오른다. 뒤에 선 사람의 뜨거운 날숨이 뒷목을 덮는다. 간간이 농담이 흐르고 짧은 웃음이 터지지만 시선은 문에 붙박여 있다. "예전엔 깜박거리기라도 했잖아"라고 누군가 볼멘소리를 하는 순간 정작 깜박거린 건 카메라 플래시였다. 사장님은 오늘도 플래시 섬광처럼 나타났다가 셔터 소리와 함께 사라지셨다. 그래도 오늘은 웃으셨다. 의미는 모르겠다. 해석이 분분하다.

어제 읽던 소설책을 펴들었다. 요즘은 현실이 소설 같고 소설이 현실 같다.

소설은 허구라고 했던가. 그럼 이 비현실적인 현실은 허구이고 소설일까. 주제는 무엇인가. 상대의 마음을 알수 없으니 각자의 시선으로 전개되는 시점의 이야기는 점점 열린 결말을 향해 가는 걸까. 세월이 흐르면 나는 이 파업을 어떻게 기억할까. 나는 주인공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 스스로 쌓은 싸움의 명분. 그래 나는 매일 조금씩 액자 소설을 쓰고 있다.

도시락에 감동한다. 김밥에 감사하다. 비빔밥에 감격했다. 매일 허기가 졌다. 배고프면 슬픔이 커졌다. 내게 점심

때는 수양이다. 허리를 곧추세우고 가부좌를 튼 채 발우공양을 한다. 티끌 하나 없는 빈 그릇을 보면 잠시 번뇌가 사라지는 듯했다. 세상의 모든 도시락엔 부처가 있음을 깨닫는다.

오랜만에 대의원회의를 했다. 사측과의 협상이 시작됐다. "집회보다 협상이 더 어려운 싸움"이라는 위원장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투쟁의 시작을 기억해내고 어디서 끝을 맺어야 하는지 자문해본다. 나는 싸움의 끝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까. 끝은 끝이 아니고 시작일 것이며 이번 파업은 적어도 회사에 적을 두는 한 되돌이표처럼 끝없이 그 의미를 내게 물어올 것이다.

집으로 가는 열차에 올라앉았다. 맞은편 차창으로 들어온 햇살이 찡그린 내 얼굴을 칼날처럼 벤다. 녹진한 공기를 잔뜩 머금은 기차가 꿈결처럼 한강위를 넘실거리며 건널 때 그만 눈을 감았다.

꿈을 꿴다. 알 수 없는 고원 위에 드러누워 있다. 묶여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바람에 마른 풀냄새가 났고 하늘엔 검은 새들이 맴돌고 있다. 죽은 자의 몸을 발라 새들에게 던지는 티베트의 천장(天葬)이 떠올랐다. 하필 지금인가. 영면의 순간을 기다리는 몸은 이상하게 고통이 없었다. 순간 땅 위에 내려온 새와 눈이 마주쳤다.

형형한 눈빛이 가슴을 파고들더니 순식간에 끝없는 나락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에 소스라쳤다. 잠시 후 시야가 하늘에서 땅으로 바뀌었다. 하늘을 나는 새의 눈으로 내려다본 대지는 그저 아름다웠다. 영혼은 그렇게 자유로웠고 꿈속에서 나는 까무룩 잠이 들었다.

☞ 1면에 이어

텐트를 지키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텐트 당번들은 의외로 '시간가는 줄 모르고' 반나절을 보낸다.

파업이라는 묵직한 주제로 시작해 요즘 즐겨 보는 드라마 얘기까지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면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 것.

장하나 조합원은 "고현실 조합원과 두 번째로 텐트 당번을 같이하게 됐는데, 확실히 이전보다 더 친해진 것 같다"면서 "오늘은 정말 수다를 떠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며 웃었다.

현혜란 조합원도 "텐트 당번 덕에 선배들과 많이 친해진 것 같아 좋다"고 보였다.

야간 텐트 당번도 상황은 비슷하다. 공식적으로 음주가 금지된 상황에서 6-7명씩 한 텐트에 모여 다양한 주제로 논의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철야 농성'을 두번째한 정치부 이준서 조합원은 "텐트 안에서 밤을 새우다 보니 조합원들과 평소

는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주제를 놓고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었다"면서 "간밤에도 '국가기간통신사'라는 연합뉴스의 지위 등에 대해 새벽 2-3시까지 격론을 벌였다"고 소개했다.

◇ "연합뉴스 파이팅" 시민들도 관심

공정보도 텐트는 이날도 시민들에게 연합뉴스 노조의 파업을 알리는 '홍보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장하나 조합원은 "오후 1시반쯤 한 아주머니가 텐트안을 들여다보며 '파이팅!'을 외치고 가셨다"면서 "확실히 텐트가 있으니 시민들이 더 관심을 갖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아란 조합원은 "많은 시민들이 텐트 앞에 세워놓은 파업 안내문을 읽고 갔고, 텐트까지 와서 파업 특보를 가져간 분들도 여럿 있었다"면서 "얼마 전 비치된 영어 안내문 덕에 외국인들에게도 홍보가 잘되는

것다"고 평가했다.

◇ "시즌 3'는 안돼!"

이날 텐트를 지킨 조합원들은 "노사 협상이 잘 돼 세 번째 당번까지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내비쳤다. 정아란 조합원은 "오늘 먹은 저녁이 텐트에서의 '마지막 만찬'이 됐으면 한다"면서 "조합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파업 상황을 조기에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합원들은 사측의 성의있는 태도도 주문했다. 이준서 조합원은 "텐트 농성을 시작하고 나서도 한 달이나 더 파업이 계속되는 이유는 사측이 협상 국면마다 '파투'를 냈기 때문"이라면서 "사측은 노조 게시판에 올라온 일부 글 등을 근거로 파업 대오가 약해졌다고 오판한 것 같은데, 조합원들은 모두 지도부를 믿고 따라가자는 입장이다. 다시는 사측이 상황을 오판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